

## 섬 개발 '딜레마'

전남, 관광객 급증 주민 급감  
각종 편의시설 늘어난 자리  
고유한 생태 문화는 사라져  
체계적 개발전략 마련 시급

전남 섬의 가치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문객은 급증하고 있으나 거주민은 급감하고 있다.

방문객을 위한 이질적인 편의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며 섬 곳곳에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반면 섬이 지닌 고유한 생태와 문화에 대한 조사 및 보존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고령화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남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1년 말 금오도 등 11개의 유인도가 속한 여수시 남면의 인구는 5233명이었으나 지난 2014년 말 3341명으로 1892명이 줄었다. 화정면 개도는 같은 시기 1166명에서 777명, 남도 433명에서 298명으로, 백야도 520명에서 379명으로, 각각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비밀감'로 일약 유명 관광지가 된 금오도는 주말이면 몰려드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택시가 2대에 불과해 금오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차량과 함께 섬을 찾으면서 좁은 섬 도로 곳곳에서 정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외지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섬 경관과는 다소 이질적인 펜션, 조립식 건물 등도 하나 둘 섬에 들어섰다. 섬 경관을 고려하기보다는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이 강조되면서 과거 돌담, 단일색 지붕 등 섬의 특징도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외지인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섬 고유의 음식 맛도 바뀌고 있다. 막걸리, 갯김치 등

이 대표적으로, 단맛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섬 주민들의 말이다.

여수 개도의 한 주민은 "과거에는 외지인들에게 개도 막걸리를 추천했지만 이제는 10명 중 6명은 맛이 변했다고 말한다"며 "섬 고유의 맛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2015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여수 남도는 선정 이후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3.3㎡당 평균 5만 원대에 거래됐던 땅이 10만~15만원대까지 상승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전언이다. '개발 압력'이 거세지면서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

섬 내 초고령화 현상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남도 부속도인 추도의 경우 그나마 남아 있던 섬 주민 3명이 모두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거주민이 '0'이 됐다. 23가구 31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하화도는 주민 대부분이 70세 이상으로, 최근 교향으로 이주한 이장만 50대다.

지난 198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거주민에 대한 규제가 지나쳐 주민 정착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별 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근간으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김준 박사는 "전남 섬의 가치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획일적인 규제나 개발 방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수, 육지와와의 거리, 생태자원의 분포 등을 감안한 조려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생태·문화자원은 완벽하게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정희기자 chkim@



광주판타지4 DJ뮤직페스티벌 '에어돔'

광주 상무지구 조각공원 옆에서 열리고 있는 '2015 광주판타지4 DJ뮤직페스티벌' 행사에서 높이 8m의 초대형 에어돔이 화려한 빛을 내뿜고 있다. 야외수영장과 함께 매일 밤 다채로운 공연과 푸드·맥주축제가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다음 달 9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U대회는 세계 스포츠사에 남을 최고의 대회"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광주시·조직위에 감사 편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 성공 개최에 감사하는 서한문을 조직위원회에 보냈다.

〈관련기사 3면〉

국제연맹이 단체명의로 폐막 후 개최 도시에 감사서한을 보낸 것은 꽤 이례적이다. 메르스 사태와 북한 불참, 태풍 등

3대 악재를 극복해낸 광주시의 노력에 서한문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광주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FISU는 지난 22일 윤장현 광주시장(광주U대회 조직위 공동위원장), 김황식 공동위원장, 김윤석 조직위 사무총장, 조직위에 각각 서한문을 보냈다.

FISU는 윤 시장과 김황식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광주U대회는

(FISU)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대회로 막을 내렸다. 한국 정부와 함께 직접 진두지휘하며 보여준 절대적 헌신과 지지 가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FISU는 또 "광주에서 경험한 열정의 순간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대학 스포츠의 진흥에 광주와 대한민국의 역할이 기대된다. 모든 FISU 가족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FISU는 김윤석 사무총장과 조직위에

보낸 서한문에서도 "대회 성공은 조직위와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최고의 경기시설을 마련하는 등 조직위의 훌륭한 대회 준비로 광주 U대회가 최상급의 대회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광주U대회는 전 세계 143개국 1만3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와 전남·북 일원에서 열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또, 수도권 규제 완화 ... 산단에 서비스 업종 입주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수요 부족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허용하고, 산업단지에 서비스업종도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내놨다. 공장 설립 절차도 빨라지고, 세제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기업콜센터가 들어설 길도 열린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이들 대책이 주로 수도권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가 풀리면 투자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남 등 지방의 경우 지역산단 분량율이 저조한 데다 수요 부족을 이유로 산단지정을 해제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안이 없어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화 양극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윤현석기자 chadol@연남뉴스

## 화순·구례 35.8도 ... 폭염·열대야

광주도 34.2도 짙통 더위

광주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가운데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다.

〈관련기사 7면〉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구례·곡성·광양·화순

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또 광주를 포함한 순천·나주·장흥·함평·영암·보성·장성·담양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는 이를 이상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이를 이상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4.2도를 기록했으며, 전남에서는 화순과 구례가 35.8도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 순천 35.4도, 광양 35.2도, 곡성 35도 등이다.

광주·전남지역 15개 시·군은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으며, 이번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1일과 오는 8월1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21도~25도, 낮 최고기온은 30도~35도로 평년보다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키농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5년 8월호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광주 문화도시로 온 걸음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특집  
**착공 10년 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9월 개관**  
"광주, 문화도시로 큰 걸음"  
전당의 핵심거점, 5개원이 궁금하다  
아시아예술극장의 '데뷔무대' 개관 페스티벌

기획  
**창작 모독, 표절의 얼굴**  
신경숙 사건 계기로 들여다본  
문학과 대중문화 베끼기 실태

무인  
노중훈의 세계문화도시기행②  
피오르드와 몽크의 나라  
노르웨이에서 자연과 예술의  
위대함을 생각하다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봐-국내외 현장을 가다  
도시재생 새 패러다임,  
영국 테이트모던 미술관

스타 데이트  
"명랑에서 열혈로"  
'너를 기억해' 수사관 연기  
열연, 장나라

예향 초대석  
**광주로 소통 발걸음, 주한미대사 마크 리퍼트**  
"아들과 찾은 5·18묘지, 민주주의 열정 느껴"

남도의 장인들⑧  
대나무 꽃살로 전통 엮어가는  
**채상장 서신정**

문화 화제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앞두고 준비 한창  
송효상 건축과 빛의 미술이 만난 우재길미술관

해외 문화 기행  
모네-마그리트에 흠뻑 젖은  
지베르니, 브뤼셀에서의 시간

무대와 삶  
**"서로가 예술의 멘토"**  
연극인 노희철, 정경아씨 부부의 연극 이야기

문학 화제  
상간 10돌 맞은 광주전남 대표 문예지 '문학들'

문화현장  
젊음과 광주가 빛났던  
걸쳐버시아드 현장 회보